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12월 22일(금) (음력 11월 5일) Пятница 22 декабря 2017 г. № 49(11676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16일(토) 사할린주정부 청사 앞마당에서 주요 올카 점등식이 있었다. (이예식기자 촬영)

단신

러시아, 대선 캠페인 시작

12월 18일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2018년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해당 연방의회의령이 12월 18일 게재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2018년 3월 18일로 정해졌다. 사할린주에서 대선 준비활동은 사할린주 선거위원회가 실시하게 된다. 빅토리아 체르카소와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위원회가 이미 10월부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로 펼쳐지는 선거운동에서 기초 작업 단계인 선거홍보 단계가 시작되어 이미 12월 18일부터 사할린주 내 도시와 마을에서는 대선에 대한 정보자료를 볼 수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여러 홍보 현수막도 설치되었다.

선거위원회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차기 대선 출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할린, 제 7회 크리스마스 교육 강연회 개최

12월 22일 10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기술서비스 강당에서 <제7회 사할린 성탄 교육 강연회: 도덕적 가치와 인류의 미래> 실용과학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사할린주 교육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교구의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교사, 유치원 교원, 보충교육기관 교육자, 사할린 대학 교수와 사제 등 1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컨퍼런스의 목적은 러시아의 도덕적, 영적 발전과 전통정신에 근거한 차세대 교육 과제에 대한 실현 방안 탐색에 있다.

사할린과 한국 연구가, 영토문제 논의

지난 20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인문기술대학 강당에서 2017년 한국과 러시아 국제학술회가 개최되었다. 사할린인문기술대학과 한국 (재)독도재단이 주최한 학술회의 주제는 <환동해 문명사를 통해 본 영토문제 논의>였다.

학술회는 진 울리야 역사학 박사(러시아 측 대표)와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한국 측 대표)가 진행했다.

1부는 한국 측의 주제 발표로 이루어졌다. 이날 송희영(영남대) 교수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쟁점과 '역사적 권원'>, 최철영(대구대) 교수는 <러일전쟁의 국제법적 성격과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 이성환(계명대) 교수는 <사할린 한인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로 발표했다. 사할린 측에서는 김영순(사할린인문기술대학교) 교수의 <쿠릴열도 경제 활동 인구의 합리적 방안 연구>, 진 울리야(사할린인문기술대학)의 <남부 쿠릴열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사할린 주민들의 태도>, 세르게이 포노마료브(러시아 지리학회)의 <일본의 권리 주장으로부터 쿠릴열도(러시아와)와 독도(한국)의 보호 대책> 부제로 발표했다.

이번 학술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서 20명의 대표단이 사할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할린인문대학 산하 사할린과 쿠릴열도 노동이민 연구센터와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는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5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라다>호텔 연회장에서 러시아언론인연맹 사할린지부가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2017년은 주내 언론계에는 정말 뜻깊은 해였다. 지방신문 6개(<크라스코예 즈나야>, <티뫼스키 웨스트니크>, <즈웨스타>, <우글레고르스키에 노위스찌>, <돌린스카야 프라우다>, <나 루베제>)는 창간 70주년, 연맹 회원 일부는 여러 기념일을 맞이했다.

현재 언론인연맹 사할린지부는 회원이 130여 명인데 절반 이상은 언론계 원로들이다. 이날 티비 기자들은 사할린 언론계 역사를 영화로 소개했다.

러시아언론인연맹 류보위 카시안 사할린지부장은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정말 멋지고 훌륭하다"며 "시대, 나라, 기술 등이 변화해도 이들의 언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변함없다."고 표명했다.

이날 많은 기자와 언론사들이 상을

사할린주 언론인연맹 60주년 기념

새고려신문, 체호브상 수상



수상했다. 한때 사할린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신문 <몰로다야 그와르지야>의 주필이었던 블라지미르 부브노브(현 <리바크 사할리나(사할린 어부)>지 사장과 세르게이 타라카노브(현 <유즈노사할린스크 세고드냐>지 편집장은 연방언론인연맹의 명예의 배지를 받았고 많은 기자들에게는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

했다. 얼마 전 단체에 가입한 <사할린 벨잔니크>편집장은 이날 러시아언론인연맹 증서를 받았다.

사할린 언론인연맹의 체호브 기자상은 주내 언론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상으로 여겨졌다.

이번에 이 체호브 상으로 기자들을 아니라 사할린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언론들을 시상했다. 그중에서 <새고려신문>과 <소웨츠키 사할린>지, <구베른스키에 웨도모스찌>언론사, <사흐콤>통신사, <아크와토리아>TV방송사와 <사할린>국영텔레라디오공사의 <우리말방송>프로그램이다. 유일하게 체호브 기자상을 받은 연맹회원은 현재 언론사 소속이 아닌 세르게이 크라스노우호브 사진작가다. (배순신기자)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화성지역의 독특한 가락을 널리 알리는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전통 예술의 향연> 일정으로 화성두레 농악보존회가 사할린을 다녀갔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국제교류 차원으로 사할린을 찾아온 화성두레 농악보존회 안병선 이사장과 최순철 부이사장과 만나 본 단체 소개와 소감을 부탁했다.

안병선 이사장: 화성의 전통 두레농악 가락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 2005년에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성 각 지역에 산재되어 명맥을 이어오던 화성두레 가락을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이를 다시 화성 전역에 전수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단체 단원들은 남녀노소 한 30여 명이 구성되어 있고 전 회원이 매주 회원까지 합치면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소연 회원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일반

인 70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는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에서 열리는 대사습놀이대회에서 차상 이외도 9월에 열리는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순철 부이사장: 우리 단체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가락을 알리는 데도 목적이지만 우리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성시 소재 대표단체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원들은 단체활동도 하지만 관내에 있는 주민 자체 프로그램, 학교교육프로그램 강사 활동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화성두레농악보존회는 해외 경험도 많습니다. 동남아 쪽 - 태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대만 등으로 많이 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서 공연합

니다. 이번엔 사할린을 선택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동포들이 많이 징용와서 설움도 많고 애환도 많고 그런 동포들이 많으니 이곳을 찾고 동포들의 삶을 좀 되새기고 이분들과의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화성두레농악보존회는 우리 가락, 우리 음악을 많이 선보이고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병선 이사장: 여기에서 우리를 되게 반갑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민족끼리 서로 얼굴을 보고 옛날 생각에 얼굴을 맞대니까 진짜 감회가 깊었습니다. 여러모로 참 좋습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그룹 아이들과 워크샵(연습세미나)을 가지고 <에트노스>예술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주 기쁩니다. 동포아이들의 실력도 좋았습니다. 사할린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번 일정을 협조한 사할린주한인회와 새고려신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8" 사할린에 도착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8'(이하 '사할린달력') 1,400부를 제작하여 이중 1천2백부가 12월 19일 사할린 현지에서 도착하였다.

'사할린달력' 제작은 사할린 동포 1세분들이 기일, 명절, 농사, 손없는 날 등 일상생활속에서 음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올해로 다섯 번째이다. 이번 달력은 지난 5월 사할린에서 전시회를 가졌던 이철수 판화가의 작품들로 꾸며졌다. 러시아어 번역과 감수는 이선영(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행정원)이 올해도 수고해 주었다.

'사할린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모금을 통해 제작해 왔으며, 올해는 댓글응원과 공유, 직접기부 등으로 5,773명이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참여했고, 단체에도 시민들과 재외동포, 일본인들이 직접 후원을 해주었다. 제작과 운송 및 현지방문에 필요한 부족한 재정은 재외동포재단과 NH농협생명의 후원으로 충당되었다. NH농협생명은 3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1월 KIN의 사할린 방문단은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사할린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아나와, 포로나이스크, 노글리키 등을 방문하여 동포들을 만나 구술작업을 진행하고, 사할린 현지 동포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KIN은 작년부터 사할린주한인회가 매년 주최하는 설잔치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도 한인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여는 설잔치 지원을 위해 대형 밥솥 2개를 보냈으며, 각 지역 한인회에도 설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KIN 제공)

이모저모

사할린의 재능아들 시상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인형극장에서 연례 <예술의 영재>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오늘은 대단한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기획의 결산으로 사할린주의 뛰어난 예술의 영재들에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은 음악, 무용, 연기, 미술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창작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성을 향한 길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훌륭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해 주길 기대합니다."라고 사할린주 문화교문서보관부 올가 니콜리나 차관이 말했다.

<예술의 영재>기획에는 4 개의 창작교육연구실이 연결되어 있어 사할린주에서는 노래, 음악, 무용과 미술에 우수한 소질을 지닌 학생들이 정기 연수에 모여 그들의 재능과 지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예술의 영재>상 수상자로는 아나스타시아 말린키나 (우글레고르스크<하르모니아>예술학교), 조하정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술학교), 마르가리타 라코와 (아나와 예술학교), 알로나 익사노와(포로나이스크미술학교), 아나스타시아 체르니호(코르사코브 예술학교), 손 제니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음악학교), 아젤 가지줄린(돌린스크예술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예술학교의 <아크와렐>무용단과 <콘페찌>무용단, <에트노스>예술학교 한민족과의 <무궁화>무용단, 포로나이스크예술학교의 <로드니초크>무용단이 수상했다고 주문화예술 분야 과학방법론교육센터가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наградили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театре кукол прошла ежегод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Творческая одаренность".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раздник, ведь сегодня мы подводим итоги уник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граждаем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а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льга Николина. — Безусловно, данный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началом творческого пути для наших талантливых музыкантов, танцоров, актеров и художников. Я лишь хочу пожелать им, чтобы они не о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а продолжали развиваться и радовать зрителей своими прекрас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Проект "Творческая одаренность"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четыре учебно-творче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Лучших юных певцов, музыкантов, танцоров и художников с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улярно собирают на сессии, где он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более углубленные знания.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премии "Творческая одаренность" были вручены Анастасии Малинкиной из углегор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Гармония", Де Ха Дён из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ргарите Раковой из анив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Алене Иксановой из поронай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Анастасии Черных из корсаков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Денису Сону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1, Аделю Газизуллину из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Долинска, двум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м ансамблям из школы искусств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Акварель" и "Конфетти", а также ансамблю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Мугунхва" из "Этноса" 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му коллективу "Родничок" из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Поронайска,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유즈노사할린스크, 학력경시대회 총결 진행

주 중앙도시에서 전 러시아 학교 학력경시대회 지방자치단계의 결승이 진행되었다.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 26개 교육기관의 4-11학년 학생들 1682 명이 참가했다.

학력경시대회에는 16개의 과목에서 치러졌다. 역사, 수학, 생태학, 물리학, 법학, 사회학, 지리학, 문학, 화학, 정보통신, 체육문화, 세계예술문화, 경제, 러시아어와 영어 등 각 과목별 학생들이 시험 문항에 답하는 방식이었다.

올해엔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492명은 지방자치단계에서 수상하게 되었고 75명은 우수한 성적으로 명단에 올랐다. 보다 많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학교로는 제1, 3, 6, 22, 26, 32호 학교, 제1, 2 리체이, 제1, 2, 3 김나지아와 동양김나지아, 육군유년학교이다.

이번 경시대회 참가자 중에는 몇 개 과목에서 한꺼번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배출된 것이 특이했다. 알렉산드르 베스팔로브(제2김나지아 7학년)는 수학, 생태학, 영어, 지리 과목에서 1등을 차지, 유리 카쉬푸로비츠(제2리체이 8학년)는 러시아어, 생태학, 지리, 물리 과목에서 1등을 차지했다. 제니스 타우레니스(제2리체이 10학년)는 수학, 물리, 정보통신 과목에서, 김춘성(제2리체이, 11학년)은 문학, 생태학 과 물리 과목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지방자치단계의 우승자와 수상자로 구성된 팀은 1월과2월에 진행될 지역학교 학생경시대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대표해 나간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шко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682 учащихся 4-11-х классов из 26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лимпиада проходила по 16 предметам. Ребятам предстояло ответить на тестовые задания по истории, математике, экологии, физике, биологии, праву,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географии, литературе, химии, информатик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МХК, экономике, русскому и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ам.

В этом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казали отли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75 учащихся названы победителями, 492 стали призерам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этапа.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набрали ученики школ №1, 3, 6, 22, 26, 32, лицеев №1, 2, гимназий №1, 2, 3 и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кадетской школы.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олимпиады особенно отличились школьники, победившие сраз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предметам. Александр Беспалов (7-й класс, гимназия №2)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математике, экологии,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у, географии. Юрий Кашпурович (8-й класс, лицей №2) стал первым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экологии, географии, физике. Денис Тауренис (10-й класс, лицей №2) набрал наивыс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по математике, физике и информатике, а Ким Чун Сон (11-й класс, лицей №2) — по литературе, экологии и физике.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из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этапа представи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региональной олимпиаде школьников,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январе — феврал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사할린 곰들의 고기잡이에 대한 영상이 이스라엘 영화축제에서 수상

사할린 곰들의 생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자렛 인접 페스티벌> 국제영화제에서 <동물 관련 우수영상>상을 수상했다. 영상 감독인 세르게이 아사올렌코는 사할린의 자연보호구역 중 한 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곰 3마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12분의 영상으로 영화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8면에 계속)

지난 16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회 25주년 기념 <전통 예술의 향연>이 진행되었다.

한국 경기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주최와 사할린주한인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17명의 화성두레농악보존회 단원들이 사할린을 찾았다.

이날 한국전통예술단체는 화성두레농악을 선보였다. 고사굿 "비나리"는 관객의 안녕과 복을 비는 (풍물 재비가 고사상 앞에서 부르는 소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관객들 중에는 옛날 어르신들의 풍습이 생각난 듯, 한 관객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기도 했다.

청아한 피리 독주 "경풍년"은 주로 궁중과 민간의 잔치에서 음식상을 올릴 때 연주하였다고 한다.

해금은 웅장한 향상을 울린다. 사회자의 해석에 따르면 쓸쓸하고 외로움을 표현한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단모리, 굿거리, 잣은 타령, 주중모리, 엇모리 순으로 연주되었다. "적념" 해금 독주는 장구 반주로 연주되었다.

화성두레농악회의 또 하나의 무대는 태평소 시나위와 한량무였다.

즉흥적인 가락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음악'인 시나위를 관악

전통 가락에 흥겨워진 사할린 관객



기인 태평소와 타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곡이다. 즉흥적인 남도 선율의 태평소 가락에 남성이 춤(한량무)을 추는 것이 사할린 관객들에게 낯선 일이었다. 이날 무대는 한국 단체만 아니라 사할린 팀들도 선보였다.

언제나 예쁘고 우아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무용단들이 출연했다. <개나리>무용단(지도 김 예브게이아)은 바라춤을, <무궁화>무용단(지도 최경순)은 부채춤으로 화려함과 우아함이 넘치는 춤속에 관객들은 매료되었다.

이날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그룹도 한껏 실력을 발휘했다. 전에 활동하던 <하늘>그룹의 연주자들이 학교 졸업 후 해체되면서 새로이 구성된 <하늘> 학생팀은 이날 난타연주로 처음 첫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무대에 선 6명의 학생들은 5개월간 타악기를 배웠다고 한다. <웃다리>사물놀이하는 <하늘>의 성인팀과 학생팀이 함께 해 신나게 놀아주어 한국 춤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

공연의 가장 멋진 순서는 화성두레농악보존회의 마지막 출연이었다. 화성두레농악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악이다.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 때까지 연행되던 지신밟기와 마을 풍년을 기원하는 대동굿 등 농사의 첫 시작인 논두렁 정리와 논에 물을 대어 모내기를 하고 세 번의 김매기가 끝나면 잠시의 농한기인 백중 무렵에 행해지는 호미걸이(호미씻기), 마을의 기를 걸고 마을단위로 두레농악의 기량을 겨루던 '두레기 싸움'과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와 풍년,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개인놀이까지를 구사하는 등 생활 속 두레농악을 판제 형태로 연행하는 작품"이라고 최순철

부이사장이 해석했다.

사회자가 말한 대로 단체놀이가 개인놀이를 계속 바뀌어지면서 흥을 제대로 잡아 화성농악팀은 신나게 놀았다. 어떤 개인 놀이는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였다.

짧은 공연이었지만 농악과 무용, 전통 음악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큰 감동을 전해준 공연이었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와 경기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신문(한국)과 새고려신문사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 이예식)

<기획> 사할린에 우리 동포가 있다 사할린 동포 1세 "전라남도 순천시 사할린까지 갔지요"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사할린 잔류 동포들을 알고 계신가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동쪽과 일본의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령 사할린. 한겨울에는 영하 40도를 기록하는 혹한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살던, 또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1905년 한반도를 무대로 벌어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따라 사할린섬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일본명, 미나미카라후토 南樺太)을 차지했습니다. 남사할린에는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일제의 대외침략정책이 본격화된 1938년부터는 강제징용으로 탄광에 끌려온 조선인들이 많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했습니다. 일본정부는 항구에서 자국민만을 선별해 배를 태워 사할린 남쪽의 홋카이도(일본)로 들여보냈습니다. 당시 대략 4만 3000명으로 추정되는 동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강제징용의 책임을 저버린 일본정부는 일본인들(또는 일본인과 결혼한 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만 바닷길을 제공했습니다. 동포들 대다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남녘 출신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미국, 소련의 개입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분단으로 치닫는 상황. 한국정부는 무기력했습니다. 동포들은 정부에 기댈 수 없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으면 금세 꽁꽁 얼어붙는 사할린



에 남아야 했습니다. 일본어에 이어 러시아어를 익혀야 했습니다. 일본인을 대신해 새롭게 등장한 소련인들의 림바구니 속에서 생존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후 구소련 말엽인 1989년 7월 귀국길 논의 열리기 이전까지 동포들은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일 양국 적십자사는 '사할린한인지원 공동사업체'를 체결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리라'며 무국적자로 남아있던 1세대 동포들의 귀국길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직접 책임이 큰 일본,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적십자사를 교로 삼아 동포들의 귀국 및 조국방문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그 대상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난 동포 1세, 또는 같은 시기 이전부터 사할린에서 거주해 온 동포들로 제한했습니다. 2, 3세대는 귀국이 아닌 일시방문만 가능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길 바라는 국민적 관심은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극진히 대접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일제 피해자인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국민적 관심도 희미합니다.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전국 24곳의 임대아파트, 요양시설에서 빠듯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동포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귀국길이 열린 지 30주년(2019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는 달리 사할린 동포들의 사례(영주귀국, 모국방문, 귀국자 사할린 역방문 등)는 한국사회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동포 어르신들의 요양을 담당하는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아는 한국인은 무척 드뭅니다. 총 3편으로 이어질 사할린 동포 기획기사, 우선 동포 어르신들의 생생한 말씀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하루빨리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길 추구하고 싶습니다. - 기자말

대설을 앞두고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찾아온 지난 5일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찾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동포 1세대 분들이 여생을 보내고 있는 곳. 노환을 겪는 사할린 동포 1세대 어르신을 책임지고 모시는 국내 유일의 장기요양시설이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신연수역 3번 출구에서 내려 인천적십자병원의 언덕을 타고 올라가 표지판을 따라가면 태극기와 적십자기가 나부끼는 회관입구가 나온다.

회관은 적십자병원과 아파트 단지, 낮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다. 건물 바깥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정자와 벤치가 놓여있다. 건물 뒤쪽으

로는 야산으로 통하는 산책길이 있다. 치매를 겪어 회관을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최근 들어서는 바깥나들이를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산책길 바로 옆에는 회관 내부에서 화재 발생 등 사고가 생기면 어르신들이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용 미끄럼틀'이 눈에 띈다.

회관을 찾아 동포 1세대 강정순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회관 1층 4인 1실, 강 할머니의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 회관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 할머니는 1932년생으로 올해 86세. 무척 정정하셨다. "점심 안 드셨지?" 강 할머니는 감, 사과, 여러 과자 등을 준비해 기자를 기다리고 계셨다.

강 할머니는 본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다. "일본 사람들만 다 데리고 나가고. 한국 사람들만 남아서. 한국 사람들만 입자 없는 사람 되어서" 아래는 강 할머니의 말씀을 정리해 축약한 인터뷰 내용이다.

- 안녕하세요. 존함과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관은 1999년 처음 문을 열었는데, 어르신은 언제부터 이곳에서 거주하고 계신지요? 또 한국에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셨나요?

"이름은 강정순이고 86세(1932년생)입니다.

2006년 6월 30일부터. (거주하고 있어요) 비행기로, 일본으로 해서 왔을 거예요. 빨리 왔으니까. 한 3시간 반(걸렸죠). 그전에는 북한으로 해서 왔지만 북한이 막혔으니까."

- 일제 패망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인을 제외하고 일본인만 선별해 일본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조선인들 대다수가 일제의 강제동원 정책에 의해 사할린으로 건너오게 됐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건데요. 당시 동포들이 처한 상황은 어땠나요?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СУЖДЕНА ПРЕМИЯ ЧЕХОВА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отметило 60-летие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этому событию, проходили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15 декабря состоялось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гостинице "Лада" собрались журналисты из многих районных газет, на праздник приехали и ветераны отрасли. Более часа заняла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ЖР Любовь Касьян вручила коллегам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от руковод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и от ме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вечере вспомнили историю созд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фильм-воспоминание с бесценными кадрами фотохроники о преданных мастерах своего дела.

Сейчас в рядах СЖР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130 человек. Особы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ЖР стало рождение чеховской премии. Работников пера и микрофона, увы, не принято было ни тогда, ни сейчас отмечать высоки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обходились грамотам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ями. Поэтом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ремия имени Чехо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СССР, а потом России, обрела в журналистских кругах высокий статус признания творческих успехов.

На юбилейном вечере были вручены награды ветеранам СЖР. Почетного знака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удостоены Владимир Бубнов и Сергей Тараканов. Грамоты и дипломы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достижения от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ручены журналистам районных и областных СМИ, ветеранам отрасли, районным газетам, перешагнувшим 70-летний рубеж.

Редактору газеты "Сахалинский нефтяник" Анне Чураковой в этот день вручили главный документ — удостоверение члена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Дипломом имени Чехова награждены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Sakh.com, телекомпания "Акватория", программа "Уримал Бансон" ГТРК "Сахалин" и Сергей Красноухов.

ЕЛЕНА ГЕРЦЕН

В СГТИ прошел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20 дека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институте прошел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по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м спорам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еминар состоялся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ахГТИ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фондом Токто и Университетом Кемён. Стороны в рамках семинара также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науч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семинаре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ыступали профессор Сон Хвиён (Университет Ённам), Чхве Чольён (Университет Тэгу) и Ли Сонхван (Университет Кемён), от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 проректор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СахГТИ Ким Ен Су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 СО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номарев Сергей Алексеевич.

На семинаре завязалась интересная дискусс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астники (от фонда Токто приехала делегация из 20 человек) живо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сахалинскими докладами,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предлагали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а дискуссия по правильным названиям – Сергей Алексеевич Пономарев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с призывом не называть Малую Курильскую гряду японским названием «Хабомай», указав, что это название неправильно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удивлены. Ведь изучая вопрос о притязаниях Японии на Курилы, они читали в основном япон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источники, где это название прочно укоренилось.

На семинаре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совпадение позиций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основным вопросам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итязаний Японии и решено продолж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той сфере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Наш корр.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ooo «мускон - соболь»

реклама

НАПЕВЫ И РИТМЫ МЕСТНОСТИ ХВАСОН ПРОЗВУЧАЛИ НА САХАЛИНЕ

16 декабря 2017 года в помещ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К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 концерт Общества по сохранению самобытной крестьянской музыки местности Хвасон (Южная Корея). Инициаторами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само Общество (председатель Ан Бен Сон)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к Сун О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возращению» молодежи, созданию творчес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на баз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Коллектив вед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о развитию и сохранению традиций, а также проводит работу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и глобализации традицио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Общество получае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риглашения на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иках и фестивалях не только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но и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мира.

школьная секция группы «Ханыль» исполнила композицию на барабанах бук.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раздничного вечера сахалинские зрители тепло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концерта.

Самым ярким зрелищным аккордом стал последний выход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ансамбля. Напевы и ритмы местности Хвасон, со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артистов перемежались с ударными партиями коллек-



Собр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до, Фонда культуры города Хвасон,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 газеты «Гёнги» (Южная Корея).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до г. Хвасон, был созда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его основателя, участника и главного солиста коллектива Ан Бен Сон в 2005 году. Затем в 2009 году официально был переименован в Общество по сохранению самобытной крестьянской музыки местности Хвасон. К сожалению, быстр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процесс урбанизации «поглощает» уникальные напевы и мелодии сельских местностей. Поэтому основные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иск и открытие разбросанных по всей местности Хвасон напевов,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их и передать потомкам как драгоценное 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 В Обществе главная роль отводится воспитанию и

крестьян от урожайного года и так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бычно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сь в королевских дворцах и на народных гуляниях во время накрытия столов угощениями, «Композиция «Синави» для дудки тхэпенсо и танцеваль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Хянрянму».

Яр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звуча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ак нельзя лучше передавали колорит старых времен Кореи.

В концер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 наш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танцевальные ансамбли ДШИ «Этнос», которые исполнили танец «Бара» (танец с латунными тарелками) и всеми любимый, женственный «Танец с веерами», и группа «Ханы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исполнении коллектива «Ханыль» ярко прозвучала композиция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Уттари», а

Зрители бурны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поддерживали зажигат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которые порой удивляли номерами чуть ли не циркового класса.

Коллектив Общества по сохранению самобытной крестьянской музыки местности Хвасон давно мечтал побы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о котором они в Корее очень были наслышаны. В этой поездке они более детально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етили исторические места, связанные с печальной трагедие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 также полюбовались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города. Под большим впечатлением гости остались от белоснежного снега, которого выпало так много во время их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В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ществом был дан мастер-класс сахалинской группе «Ханыль»,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ой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питывали новые знания. Ансамбль также побывал в гостях в ДШИ «Этнос», где им рассказали, как сохраняется и развивается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надеется, что самобытные крестьянские песни, мелодии и танцы, ставшие единой частью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по настоящему взволновали и впечатлили сахалинцев.

РИ ОЛЬГА
Фото: ЛИ Е СИК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нститут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дставил прогноз по СК на 2018 год

18 декабря Институт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е разведки РК, представил прогноз по СК на 2018 год.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помимо ужесточения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Пхеньяна, США будут наращивать присутствие сво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в РК. Это приведёт к увеличению расходов Пхеньяна на разработку вооружений. В результат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будет нанесён серьёзный уро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института заявил, что обычно резолюции и санкции проявляют реальный эффект через 6-12 месяцев, поэтому эффект от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езолюции СБ ООН 2375, принятой в сентябре, можно ожидать с март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днако неизвестно, приведёт ли это к изменению политики Пхеньяна по ядерному оружию.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Север может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новых провокаций до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ёнчхане, а затем предложить диалог такт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 вопросу участия СК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институте отметили,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Север выразит свою позицию, приняв во внимание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 также возможные изменения планов РК и США по проведению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По имеющимся данным, СК завершила подготовку к участию сво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Олимпиаде, дело лишь за решени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Ким Чон Ын почтил память своего отца

17 декабря в СК прошли тра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связи с шестой годовщиной со дня смерти бывшего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Ира. Нынешн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им Чон Ын посетил Кымсусанский дворец солнца, где хранятся забальзамированные тела Ким Чен Ира и основателя КНДР Ким Ир Сен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не указало, сопровождали ли его чиновники высокого ранга.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опубликовала фотографию, на которой изображён только Ким Чон Ын. В ходе посещения Кымсусанского дворца он обещал развернуть «решительную борьбу» за то, чтобы сделать СК независимой в политик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в экономике и опирающейся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в обороне.

В РК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лимпийской деревни

15 декабря в РК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лимпийской деревни, где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оящей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Основные объекты постро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ла Тэгваллён-мён уезда Пхёнчх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600 квартир) и в городе Канныне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922 квартиры).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был привлечён частный капитал в объёме 367 млн 400 тыс. долларов. Олимпийская деревня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Игр примет около 6 тысяч постояльцев. Столовые предлагают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европейской и азиатской кухни.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мусульманских стран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блюда халяль. В деревне имеются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и членов делег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помещения для отправления религиозных обрядов.

Сон Ган Хо назван лучш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иноактёром 2017 года

Сон Ган Хо назван лучш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иноактёром 2017 года,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Gallup Korea, опубликовав результат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проса. Он проводился в период с 8 по 28 ноября среди 1.700 жителей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Лучшим актёром 2017 года Сон Ган Хо назвали 35% респондентов. Его также называли лучшим актёром в 2008 и 2013 годах.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Ма Дон Сок, набравший 17,8% голос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нял Ли Бён Хон,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12,6% голос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десятке популяр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ктёров 2017 года нет ни одной актрисы.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у Ким Хе Су, занявшей 12-ое место.

Экспорт рамён превысил 300 млн долларов

Экспор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рамён впервые достиг отметки в 30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346 млн 430 тыс.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31,9%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увеличение связано с ростом спроса на данную продукцию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благодаря качеству и разнообразию продукции.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увеличение спроса объясняется влиянием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Халлю. На Китай приходится 25,9% экспортных поставок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амён, на США - 12,3%, на Японию - 6,6%, на Тайвань - 5,6%, на Австралию - 4,4%.

(RKI)

США перенесли военные уч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на время Олимпиады

После долгих отказов Вашингтон в итоге поддался на уговоры Сеула и согласился не пр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маневры во время Олимпиады в Южной Корее, перенеся учения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а также источники в местном парламен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ока официально отказалось подтверждать это, уклоняясь от ответов по поводу даты маневров.

С 9 по 25 феврал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хенчхане пройдут очередные XXIII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а с 9 по 18 марта там же состоятся XII зимние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Частично это совпадает с ежегодными крупными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военными учениями Key Resolve и Foal Eagle, где с обеих сторон участвуют сотни тысяч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боевой техники. Эти учения, как правило, стартуют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или самом начале март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тали громко слышны призывы перенести маневры, чтобы не провоцировать КНДР на время Олимпиады, 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ть мирный статус Игр, которые призваны останавливать все войны.

Американцы долго отказывались внимать призывам южнокорейцев, всячески подчеркивая, что "учения перенести невозмож-

но", но, похоже, что поддались на уговоры. Если еще буквально пару дней назад все источники говорили, что "у военных США слишком плотный график маневров, а потому учения в Корее перенести уже невозможно", то теперь появились совершен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сообщения.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уже решено, что учения перенесены на период с 18 апреля по 5 мая. В чем причина сокрытия под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 прямо спросил у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Кореи Сон Ён Му депутат от оппозиции Ким Хак Ён, когда народные избранники вчера проводили заседание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обороне, пригласив туда главу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Эту же информацию подтвердило издание "Чосон Ильбо", ссылаясь на анонимный источник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Вашингтон сначала был против идеи переноса, но в итоге уступил просьбам Сеула... Сроки учений могут быть потом еще раз скорректирован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цитирует газета слова дипломата. По словам собеседника, командно-штабные маневры Key Resolve перенесены на последнюю неделю апреля-первую неделю мая, а более крупные учения Foal Eagle "также отложены и сокращены по про-

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Все это породило спекуляции, что США решили перейти от тактики давления к переговорам с КНДР. Недавно госсекретарь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публично согласился на прямые переговор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а теперь Вашингтон решил маневры, которые обычно сильно нервнируют Пхеньян.

Впрочем, официаль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ока уходит от прямых ответов. Тот же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Кореи Сон Ён Му в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депутата сказал, что "впервые об этом слышит". В Объедине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журналистам сказали, "не считают возможным публично обсуждать различные военные вопросы, включая пока не согласованные сроки учени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ОКНШ ВС РК не стали отрицать, что переговоры с США о возможном переносе сроков учений имеют место.

Отметим, что военное ведомство Кореи ранее неоднократно тоже "впервые слышало" о переговорах с США по поводу размещения батареи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 а потом сделало публичное заявление о решении принять комплексы ПРО THAAD.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Более 2 млн иностранцев сдали экзамен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сдавших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й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ОPIK), превысило 2 млн человек. За 20 лет их число увеличилось в 107 раз, составив 2.120.168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4 дека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институте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Это накопл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давших

экзамены всех уровней, включая участников последнего, 55-го по счёту экзамена ТОPIK,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18-19 ноября. ТОPIK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 в 1997 году, и тогда в сдаче первого экзамен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692 человека.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экзамен сдавали 290.638 человек.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достоверные эксклюзивные новост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재단의 따뜻한 사랑나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위문품 전달

14일 인천남동사할린센터, 20일 안산고향마을 방문해
생필품 등 위문품 지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연말을 맞아 전국 29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약 2천 9백 명의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재단은 지난 14일 인천남동사할린센터 방문에 이어 20일에는 한우성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안산고향마을을 직접 방문해 동포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지역 시설을 둘러보고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우성 이사장은 "이번 방문과 위문품 전달을 통해 어렵게 생활하다 모국으로 돌아온 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할린에 남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외로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모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은 물론 사할린에 남아있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안이 실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쌀과 생필품, 의료기기 등의 위문품을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전달하



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격려해왔다.

Дн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помогли островным предпринятиям наладить нов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презентац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прошедшая с 8 по 16 декабря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столицы,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Такое мнение вы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 итогам Дн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екта - министерство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сквы. По мнению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Дн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ярмарка вакансий. В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строится более 900 предприятий. Для работы на них нужны люди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ажно также показать инвесторам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центром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донести, что работат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ыгодно и эффективно.

На ярмарку на Тверской площади производи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везли лучшую продукцию.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ла выступ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На сцене транслировались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фильмы о проектах по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самого отдален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России. Потенциальным турист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ов рассказывали о красотах природы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елающим переехать предлагал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о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могали оформи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ок земли.

Ярким событием стал выход на Таганско-Краснопресненскую линию столичн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поез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Каждый из вагонов состава символизирует отдельный регион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оформ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вагона использованы виды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строва Монерон, вулканов, морские пейзажи. За время поездки в поезде пассажиры узнают о туристическом потенциале островного субъекта Федераци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традициях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В «Экспоцентре» на Краснопресненской набережной федеральные минист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бизнеса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бсуждал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меры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соци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округа.

Одним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ло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й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банком «Восто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 Сахалинской 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ей, Камчат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 в присутствии вице-преьера Юрия Трутнева поставили подписи под договорами,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участие финанс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 ипотечных программах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На Камчатке и Сахалине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банка с целью поддержк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открываются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ы.

Региональные стенды в «Экспоцентре» рассказывали гостям 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бизнес-проектах.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езентовала будущ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Он создает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Еще один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ект -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комплекс «Восток». Объект площадью 9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ледовую арену,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для игры в сквош и два боксерских ринга. «Восток» станет первым спортивным комплексом в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где будут соз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и команд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дальнейшем на базе центра появится спортивный интернат. С этими проектами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ознакомил минист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лександра Галушку.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работу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по повышению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территории и развитию материальной базы учреждений физ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пределил: подъе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наш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иоритет XXI века, - напомни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Поэтому важно, что подобные презентации помогают жителям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получить узна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а островным компаниям - найти партнеров в столице. Дня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ведена важная роль в налаживании внутри страны прочных деловых связей,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наших территор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 феврале 2018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стартует Open Innovations Startup Tour - самое масштабное в России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поиску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и развитию компетенций начинающих стартап-команд. Его организует Фонд «Сколково»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едущие эксперты Фонда «Сколково» вместе с известны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нвесторами и наставниками проведу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сессии.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отзыв о своем проекте, включающий детальный анализ его сильных и слабых сторон.

Open Innovations Startup Tour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начиная с 2011 года. Двухдневная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конкурс и конференцию для стартапов. Жюри выбирает лучшие из них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по биомедицин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В 2017 году в мероприятиях Open Innovations Startup Tour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выше 5 тысяч молодых ученых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33 проекта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конкурс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ннова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поддерживают Сахал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е институт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е должны построить два технопарка - оди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торой - в Долинске. Также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оется кванториум, в котором школьников начнут обучать робототехнике, промышленному дизайну и IT-технологиям.

В 2018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ится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едиафорум российских островов

Этапы подготовки и концепция мероприятия обсуждались на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оно в начале марта под эгидой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 числе партнеров -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медиахолдинг «Примамедиа»,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пяти лет организует крупные медиафорумы в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нициатива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рума принадлежит журналистскому сообществу.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

ласти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этот призы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медиафорум объединит около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 журналис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ме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з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ья.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окажется тема развит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Его главные ценности - информация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Задачи форума - объединение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региона и укрепление связей с коллегам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позволит лучше информиро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ую и российскую аудиторию об изменен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я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Основной идеей пр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диафорума может стать осмысление роли пограничных территорий страны. Используя медий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мы намерены показать, что эти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дают схожими путями развития,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медиахолдинга «Примамедиа» Виктор Суханов. - Уверен, проведение форума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ю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ак региона комфортного для жизни и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для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 Наша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число лидеров по темп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и. Много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а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и для жизни в целом.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форум внесе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ешение этой задачи,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круглые столы, дискусси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ыставка достижений региона. Для госте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есс-туры на веду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а. Оргкомитет приглашает журналис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повестки предстоящего медиафорума.

- Мой опыт участия в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дсказыв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медиафорум будет очень полезен для местного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бщение с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сегда наталкивает на новые решения, подсказывает темы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обменяться опытом и применить его в своей практике. Думаю, и коллегам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оближе с нашим регионом, увидеть ег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узнать, как освещаются события, - считает директор издательского дома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 Уверен, по итогам форума стоит ожидать укреп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только на уровне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о и по линии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а также органов власти.

- Считаю, что медиафорум вызов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коллег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стран. Он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и оценить потенциа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и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А впоследствии - поделиться этой информацией, используя возможности СМИ, - отмечает директор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медиагруппа «Слово»,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Долинская правда» Руслан Пе. - Для нас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е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ширить кругозор, получить знания и установить новые медиакоммуникации. Думаю, форум даст толчок для развития област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기획> 사할린에 우리 동포가 있다

사할린 동포 1세 "전라남도 순천시 사할린까지 갔지요"

(3면의 계속)

"사할린에는 1942년도에 들어가서 그땐 일본 사람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일본 사람들과 2년 반 같이 살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해방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 버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두고 가 버리고. 한국에선 밭 배웠어요. 일본학교 가니까 글도 밭도 몰랐는데. 또 러시아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가 입자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어.

얼마나 춥습니까. 난로에 불 때우고 둘러앉아서 끓여먹고. 주방 들어가지도 못해요 추워서. 물 떨어지면 얼어요. 물 떨어지면 걸레가 안 닦아지고 얼어서. 그런 데서 살았지. 뭇가 있었어요. 바깥으로 물 뜨러가야지.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감자 같은 것도 가져와서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또 우리 어머니가 영화관에서 청소해서 월급 받아서 그렇게 살고. 아버지와 오빠는 일본사람들이 1944년에 징용해서 큐슈(九州)로 데려가 버렸으니까.

내가 5남매 중 가운데. 오빠도 그때 일본사람들이 군대 데려가서 남매 세 명이 남아있었지. 동생 둘 저 그리고 어머니. 우리가 어렸으니까 어머니가 시골 가서 일해주고 감자 갈아서 떡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동생이 좀 크니까 러시아학교 가니까 한국 사람 대학 안 붙여주잖아요. 동생 1명은 북한으로 나갔어요. 북한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선전하는 바람에 동생은 북한 가 버리고. 그땐 신발도 없었고 눈이 와도. 이런 잠바가 어떻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장화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타(일본식 나무신) 신고 다니고. 점점 러시아 사람들 오는데 그 사람들도 해방 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비저고리 하나만 입고 왔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빵 같은 거 팔면 아침부터 줄 서. 쌀은 없었고. 보리, 기장 쌀 그런 거 1kg씩 주면 사먹겠다고 줄 서서. 그것도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때 배 많이 굶았어요. 그렇게 살았지."

- 1942년도에 사할린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엔 어디에 계셨는지?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인데. 아버지는 일본 큐슈 탄광에서 일하고.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게 되고 일 못하게 되니까. 아버지 초청 받고 일본 들어갔지. 일본 들어가니까. 집은 대강 지어가지고는 한 집에 방 하나 딱 주면서 4명이서 살라고. 온 식구가 요 하나 깔고 같이 잤어요. (일본으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또 오빠랑 큐슈로 징용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전쟁 나니까. 아버지와 오빠는 사할린에 오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라니까 한국으로 나오시고. 그런데 그땐 소식이 없었

죠. 길이 막혔으니까. 사할린 사람들은 불바다 났으니까 다 죽었다고 소문나서. 우리 아버지는 한국(전라남도 순천) 오셔가지고 다른 여자 데리고 살고. 오빠는 우리가 다 죽었다니까 자살해 버리고."

- 구소련 정부는 한동안 일본인학교를 조선학교로 전환시키는 등 한동안 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인정했는데요. 교육상황이 어땠나요?

"조선학교 열었는데. 조선글 배워야지 러시아글 배워야지 하니까. 조선글은 한국 못가니까 배워서 쓸 데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글만 배운 거야. 지금 거기 있는 애들은 글도 모르고 한국말 잘 못해요. 그냥 그대로 (조선학교를) 놔뒀으면 되는 건데 없애버려서. 아들이랑은 조금 배웠으니까 하지만. 다른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 할머니의 학생시절은 어땠나요?

"한국 있을 땐 학교 마당에도 못 가봤지. 그 동네 구장인지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어요. 돈 있어야 가지? 야학이라고 조금 열었다가 닫아버리면 못하고. (1942년도에) 사할린 왔으니까 일본학교 가야하는데 9월에 오니까 많이 늦었죠. 8살에 가야 되는데. 늦게 들어가서 일본학교 들어가서 일본말 조금 배우고. 러시아 사람들 오니까 늦었지.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들 보니까 학교도 못하고 야학도 못하고. 자기 이름자나 쓰고 배운 것도 유식한 말은 못하고. 보통 때 쓰는 말 약간 배웠고 그렇게 말하죠. 저는 한국말 많이 하지만. 러시아말, 일본말 잘 못해요. 짧아요."

- 사할린에서의 생활은?

"일도 하고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살기 좋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잖아요. 땅을 파서 감자 같은 것도 심고. 자기 땅이 없고 그땐 (소련이) 공산주의니까 국가 땅이니까. 뭐 좀 심어서 팔러 나가면 러시아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사 먹는 거 좋아해요. 조금씩 팔아서 돈 가지고 사먹고. 인종차별은 어느 나라나 다 있잖아요? 북한에서 사할린으로 와서 선전한다고. 가고 싶으면 북한으로 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사할린으로 들어와도 괜찮고. 마음대로 하라니까 동생이나 청년들이 좋다고 다 북한으로 나갔잖아요. 해방 후에 그렇지 뭐. 북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설한다고 일만 잔뜩 시키고. 내가 71년도 북한에 갔다 왔어요. 동생이 북한에 나가있으니까 10년 만에. 선전하느라고 잘 해줬지 뭐.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고 하니. 동생은 김책공대 나왔어요."

- 환경이 무척이나 다른 사할린, 한국 등에서 거주하셨는데요. 고향이란 말을 들으시면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조상의 고향은 한국의 전라남

도 순천이지만, 사할린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오셨으니까요. 본인이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면 어디 일까요?

"사할린이라고 반대 못하지. (할 수도 있죠) 거기서도 60년 넘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러시아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인정 있어요. 거기는 버스 타도 노인들, 아너자들이 짐 들고 타면 꼭 자리 비켜줘요. 내가 북한 남동생집 갔을 때 조그마한 버스밖에 없었어요. 한 여자가 (짐) 이고 아기 업고 버스 타는데. 사할린 같으면 남자들이 자리 비켜주는데 여기는 안 비켜주고. 전 얼마나 고향이 그럽던지. 우린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그리웠었는데. 1991년도 7월에 관광 나오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 들어와 보니까 내가 5월 달이니까 꽃이 만발하지 얼마나 좋던지. 우리 고향에 큰할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한 달 동안 갔다 왔지."

- 사할린에서는 명절나기 등을 하면서 우리네 전통문화를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할린에 거주하셨는데 특히 어떤 문화가 기억에 남으세요?

"거기선 양력 많이 쇠요. 음력보단 양력 많이 쇠요. 음력 쇠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괜찮게 사니까 두부도 하고 묵도 하고 빵도 하고 별 거 다하고. 손님들 해 주시고. 손님들한테 접대하고 지금은 많이 살기 좋아졌어 사할린도. 어려웠을 때는 없으니까 할 생각도 안하고. 옛도 달여 먹고 조금 살기 좋아지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김치도 하고 장도 담그고 한국 사람들 다 해 먹었어요. 한국음식 안 먹으면 못살잖아.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 아줌마들이 내다파니까 맛을 들여서. 김치, 가자미식해, 고사리나물, 당근채도 잘 사먹고. 무섭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먹어요."

사할린에선 눈이 왔다 하면. 문을 바깥으로 내지 안 그러면 못 나가니까. 나올 때면 구멍 내가지고 다니고. 가지러 못 나가니까 미리 안으로 가져다 놓고. 사할린처럼 눈 많은 나라(지역)도 없어요. 눈싸움은 명절 돌아오면 애들은 하지요. 학교에서 하고. 어른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자빠지기는 얼마나 자빠져요 미끄러워서. 저도 넘어져서 허리 나갔잖아요. 넘어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내가) 조그마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바람이 불면 앉았다가 안 불 때면 걸어가고 그렇게 살았죠."

-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떠나기 전,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면?

"아들이 같이 농사하다 하늘 나라 가버리니까 저 혼자서 못하잖아요. 가망이 없다 생각하니까. 밤에도 마음 놓고 못 자겠

고. 그 전엔 아들이랑 같이 다녔는데. 도둑이 많잖아요. 잘 못사니까 없는 사람들이. 소련도 잘 못사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 오면 무서워서 잠도 바로 못자고. 제가 집에서 살다가 넘어졌어요. 생각하니까. 그 땐 저 혼자 살았죠. '야 여기서 내가 넘어져 죽어도 모르겠다' 아들 (하바로프스크에 사는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뭐 합니까. 불 일 보러 갔다 생각하지 넘어져 죽는다는 거 알겠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가자. 내가 한국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좋은 기회다 가자. 나는 요양원으로 가겠다고. 내가 아프면 아들 고생시키니까 한국 가서 죽겠다고. '인천으로 가겠다' 하니까. '할머니 거기 하늘에 별 따가요. 자리 없어요'라고 들었지. 2005년도 8월 26일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가라는 날짜가 나왔단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농사도 다 맡겨 버리고. 며느리도 섭섭했겠지. 남편도 없고 도와줘야 하는데 오겠다고 다니까. 며느리는 '어머니 가시겠다면 가시오. 가서 좀 쉬시오.' 했지. 그러니까 왔지. 그땐 간단 하면 배운다고 나와서. 아프지 말라 잘 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 온다니까 좋아서. 아픈 부모 모시고 일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잘했죠 뭐."

- 사할린에 남아계신 가족, 이웃친지들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둘째아들이 하늘나라 가버리고 없고. 둘째며느리가 (사할린에서) 딸 데리고 사는데. 연금 받고 먹으면서 사니까 생활은 하고 있어요. 아프지만 말아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큰 아들은 하바로프스크 가서 여자하고 살고 있고. 딸(둘째며느리)이 한국으로 와서 있다 갔어요. (회관에 같이 지낼 수 없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할린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우리 큰며느리도 부산 살고 있고. 동생도 인천 논현동 살고 있고. 형제가 5명인데 2명밖에 안 남았죠. 손녀들도 이리저리 시집가서 살고 있고. 괜찮아요. 작년엔 한국에서도 사할린 친척 있는 데 다녀오라고 비행기표도 주셔가지고 다녀오고. 아들이 세 명인데 둘은 가 버리고 큰아들만 남고.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주 못합니다. 안부만 잘 있다고 전하면 됐죠."

- 사할린에 계셨을 때 러시아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셨는지?

"제가 바지공장에서 15년 일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말하죠. 러시아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말 배우겠는데.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라 더 말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유식한 (러시아)말은 못 하잖아요."

대강 배운 말만 하지. 러시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 회관으로 온 뒤 괴로운 일이 있다면?

"회관에 와서는 아프면 아무래도 괴롭죠. 아프면 괴워서 병원에 입원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 휠체어로 데려가서 입원시키고. 며칠 있으면 또 나오고. 여기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보통 90살 넘은 할머니들인데. 데려가면 살려놓고 하니까. 먹여주고 하니까 어떻게 죽어요. 그래도 여기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청소하다 자빠져가지고 무릎뼈 수술 해가지고. 연세도 많으니까 다리에 힘도 없으니까 자빠지면 다치고 그렇죠."

- 침략전쟁 시기 일제는 노동력이 부족한 사할린에 조선인들을 동원했습니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부터는 사할린 동포가 일본의 남서부 큐슈 탄광으로 끌려가는 2차징용 사태도 있었는데요. 오늘날 일본정부는 일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사는 해결됐다'고 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본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곡괭이 메고 판단 말이에요. 위에서 무너지면 50~60명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런 위험한 일은 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사람들 시켰단 말이에요. 징용을 시킨 거지. 노동자들이 글도 모르지 말도 모르지. 먹는 거는 시시하게 조금씩 주고. 큐슈 데려가서 탄광에서 일했잖아요. 큐슈는 징용으로 갔지. 일본사람들이 한국사람들 나쁜 일, 위험한 일 시켰으니. 죽으려면 죽는대로 살았지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해방 후에 한국으로 내보니까 징용으로 일한 사람한테 돈 하나도 안 물어주잖아. 아쉬우면 어떡하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힘으로 어떡하겠어?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야지. 그거 가지고 파고 파서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과 전쟁하면 좋겠어? 평화롭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낫지. 저 사람들이 전쟁하자면 어떡하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 현재, 건강이나 생활은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아요. 아직은 걸어 다닐 수 있고.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는 뭘가 하면. 자녀들이 왔다 가면, 사할린 사람 놀러 오면 하룻밤(도) 여기서 안 재워줘요. 밤 10시에 오면 호텔 가야되니까. 안 재워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번에 딸(며느리)이 왔을 때 하룻밤도 안 재워준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친척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재우고 저기서 재우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섭섭해요. 구청에서 안 된다 하니까. 호텔 같은 데 가서 자는 거 보다가 여기서 자면 좋지 않겠어요. 절대로 여기서 자면 안 된다니 불편합니다."

(오마이뉴스, 박명훈 시민기자)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영상을 찍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곰들에게 가까이 다가야 했고 6일간 내내 쉴 틈 없이 관찰하며 촬영했습니다. 저의 직감과 신호탄만이 곰들의 불만스러움으로부터 저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전체 내용이 구성되도록 자료를 선정해 편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종일 곰들을 관찰 촬영 실시하여 영상의 총용량은 100기가바이트가 넘었거든요. 촬영 한 가지 더 어려웠던 것은 곰 가족들의 유일한 서식지를 비밀로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라고 감독은 덧붙였다. 주 산림부의 촬영 허락 조건으로는 장소 표시가 영화 속에서 눈에 띄거나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했다고 밝혔다. 제작된 작품은 자연보호 요구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림부 관계자들에게 우선 상영해야 했다고 했다.

이 영상은 현재 세르게이 아사울렌코의 유튜브의 개인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세르게이 아사울렌코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야생적 자연 영상 제작으로 잘 알려진 사할린의 영상 제작자이며 촬영자이다.

Фильм о рыбалке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ведей стал призером фестиваля в Израиле

Фильм о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ведях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приза "Лучший фильм о животны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Near Nazareth Festival (NNF) в Израиле. Как рассказал автор ленты Сергей Асауленко, 12-минутная лента, покорившая жюри фестиваля, посвящена истории трех косолапых семейств, занятых рыбалкой в одном из заповедных уголков Сахалина.

— Фильм снимался довольно сложно. Приходилось подбираться к медведям очень близко, снимал я их на протяжении шести дней, практически непрерывно. Основной защитой на случай какого-нибудь недовольства с их стороны у меня была интуиция и фальшфейер, — рассказывает автор. — Самым сложным оказался отбор итог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чтобы получилась цельная история. У меня было более 100 гигабайт снято,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световой день я за ними наблюдал.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трудностью во время съемок, признается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 ст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хранить инкогнито уникального места, где обитают медвежьи семьи. Отсутствие в кадре узнаваемых ориентиров, признался автор, было обязательным условием разрешения на съемку о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лесхоза — смонтированную ленту пришлось даже показывать лесникам, которые признали его соответствие требованиям охраны природ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лентой можно на личном канале Сергея Асауленко в YouTube.

Сергей Асауленко — сахалинский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 и оператор, известный съемками дикой природ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2월 9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사할린주 돌린스크구역 비코브부락에서 올해 향년 100세를 넘긴 배용권 옹께서 (1916년 2월 출생) 2017년 12월 15일에 별세하셨음을 부고하며 비애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사할린주한인회 · 비코브한인회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Рекламы контентам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